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와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의 한국어 명칭 제안*

김 현 식
단독/전북대학교

Kim, Hyun Shik(2004), Propuesta del nombre coreano para el pretérito imperfecto y el pretérito en español. *Revista Iberoamericana*, 15, 67-87

Para los coreanos que estudian español, el tiempo verbal español no es fácil de entender. Eso se debe a la diferencia entre los sistemas de tiempo verbal en el coreano y en el español. Por lo tanto, si tuviéramos una nomenclatura en coreano que sea más eficaz en expresar bien el significado de tiempo verbal español, entenderlo sería más fácil. Pues se necesita considerar cómo entienden los coreanos el nombre coreano del tiempo verbal español. El pretérito imperfecto traducido en coreano 'bulwanlyogwagə' designa unas veces al aspecto imperfectivo acordando con el significado de su nombre y otras veces al aspecto perfectivo sin coincidencia: p. ej. *Estudiaba yo en esta universidad; El 12 de abril de 1555 moría en Tordesillas una extraña mujer*. Por lo tanto con el nombre 'bulwanlyogwagə' es difícil entender el uso del pretérito imperfecto español. En coreano hay '-də' llamado 'pasado de recuerdo(hwesanggwagə)', el cual sólo permite unas veces el sujeto hablante en las expresiones de cinco sentidos y sentidos internos, y en otras veces el sujeto hablante que es diferente del sujeto de la oración subordinada. A pesar de esta restricción, el '-də' tiene el perfil común con el pretérito imperfecto español: expresar el aspecto imperfectivo con los verbos del aspecto léxico durativo, y expresar la sensación vivaz del evento descrito en ambos casos de los verbos de los aspectos léxicos momentáneos y durativos. Y la palabra misma 'gwagə', que es traducción del pretérito, se entiende como el pasado general en que se incluirían los conceptos del pretérito imperfecto, el pretérito y el pretérito perfecto españoles. Por otra parte, el nombre de tiempo verbal 'gwagə' expresado por '-ass-', aunque incluye el concepto de pretérito y el de pretérito perfecto interpretado 'hyəŋchəwanlyo', es

* 익명의 논문심사위원 3인에게 감사드린다. 심사위원의 수정제안사항이 많은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similar al pretérito español expresando el aspecto perfectivo. La oposición entre el pretérito imperfecto y el pretérito y la oposición entre '-dø' y '-ass-' son la cuestión de la distancia psíquica ante el evento descrito. Teniendo en cuenta de esa similitud entre el pretérito imperfecto español y '-dø', y de la manera de acuñar el nombre de '-dø', 'hwesanggwag ø'(pasado de recuerdo), podremos dar al pretérito imperfecto un nuevo nombre coreano gwag øchæhyøn(pasado de reproducción imaginaria)' que abarca el aspecto imperfectivo y la sensación vivaz del evento descrito. En cuanto al pretérito podremos seguir usando el nombre en coreano 'gwagø' porque el '-ass-' llamado 'gwagø' es similar al pretérito español y también porque hay otro nombre de 'hyønchæwanlyo' para la forma 'he + participio pasado' que se designaría también por 'gwagø'. O será posible usarse el nombre más riguroso 'wonhyønggwagø' o 'gwagøwonhyøng' que significa el prototipo de pasado si esos nombre designarían gramaticalmente la anterioridad sin otro sentido adicional. Es cierto que estos últimos nombres parecen demasiado abstractos para los coreanos que no son lingüistas. Pues, teniendo en cuenta de que dicha anterioridad sin otro sentido adicional, se propone 'dansungwagø' que significa el simple pasado o el puro pasado.

Key words: pretérito imperfecto/ pretérito/ nombre coreano de tiempo verbal español, 불완료과거/ 과거/ 스페인어시제의 한국어 명칭

I. 서론

스페인어를 배우는 초보 스페인어학도에게 스페인어의 의미터득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양국언어 간의 시제체계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우리말로 된 스페인어의 시제명칭이 각 시제의 용법에 따른 의미를 좀더 잘 나타낸다면 스페인어 학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잘 선정되거나 구조된 시제명칭은 현실적인 필요에서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인 면에서 보아도 스페인어의 시제명칭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제까지 써온 스페인어시제의 한국어 명칭은 거의 대부분이 스페인어로 된 명칭을 번역한 것이다.¹⁾ 그리고 지금까지 스페인어 시제의 우리말로 된 명칭에 대한 연구물도 스페인어로 된 명칭에 기반 한 것들뿐

이다. 성충훈(2002)에서는 기존의 문법서 및 교재에 사용된 우리말로 된 스페인어 시제의 명칭들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가하는 주제를 다루었고, 김현식(2003a)에서는 한국어로 된 스페인어 시제명칭들에 나타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안적 명칭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그 해결책에 대한 제시는 일개인이 하기보다는 전체 스페인어학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말로 된 스페인어 시제명칭에 대한 문제제기로 의의를 삼았었다.

스페인 및 중남미 어학계에서 쓰는 스페인어의 시제명칭을 번역해서 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쓰는 스페인어 시제의 우리말 명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당 시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식의 명칭으로 제안하고 사용하는 것도 교육적인 활용 면에서나 이론적 면에서나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 언어가 외국어인 스페인어라고 해서 우리 식의 개념에 맞는 명칭을 주조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선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와 과거(*pretérito*)²⁾를 우리말의 이들과 유사한 시제와 비교한 후 이를 참고

- 1)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스페인어의 시제명칭은 스페인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번역한 것을 많이 쓰고 있으나 이론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는 중남미에서 많이 쓰는 순수히 시간적 상대성에 입각했고 가장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Bello의 시제 명칭 또는 그 개념을 받아들여 쓰는 것도 좋겠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소위 가능법(*potencial*)에 ‘과거미래’라는 명칭을 쓴다든지 하는 것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포르투갈어 문법서에서는 Bello의 ‘*pos-pretérito*’에 해당하는 ‘과거미래’, ‘*ante-pos-pretérito*’에 일차 해당하는 ‘과거미래완료’를 소위 가능법 및 가능법완료에 대해서 각각 쓰고 있는 실정이다. 스페인어 문법에서는 생소한 용어에 대한 부자연스러움이 원인이 되어 ‘과거미래’라는 표현을 쓰지 못한 면이 있는데 포르투갈어 문법의 예는 이러한 우려를 경감시키고 있으며 스페인어 문법에도 이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강국(2004)에서도 ‘과거미래’ 및 ‘과거미래완료’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4년 11월 중 사석에서 이강국 선생님과 의견의 일치를 확인한 바 있다. Bello의 시제명칭 중 우리말 번역 및 그 원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제는 본 논문이 다루는 소위 ‘부정과거(*pretérito*, 또는 단순과거)’와 ‘불완료과거(*co-pretérito*)’이다.
- 2) 부정과거(*pretérito indefinido*)로도 불린다. 여기서 부정(否定)이라는 개념은 사건의 완결과 비완결 사이에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이러한 부정에 대한 Seco(1975:69)의 예문이다: *El mes pasado viajamos por Europa/ Dijo Dios: Sea la luz, y la luz fue.* 그러나, 소위 불완료과거도 똑 같은 양상의 부정(否定)을 보인다. *El niño Jesús nació en aquella noche. / María dormía al salir el Sol.* 따라서 부정과거에서의 부정이라는 수식어는 과거(*pretérito*)를 변별적으로 나타내는 명칭에 사용되기는 어렵다.

로 하여 두 시제의 우리 식 명칭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페인어의 과거와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 및 우리말에서의 이와 유사한 시제의 개념적 공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안적 명칭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도록 할 것이다. 여타 스페인어 시제에 비하여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 및 과거(*pretérito*)의 한국어 명칭구조 및 그 명칭을 토대로 한 두 시제의 의미 파악과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I.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와 과거(*pretérito*)라는 명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사용되었던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와 과거(*pretérito*)라는 시제의 명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두 시제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난 적(*pasado*)³⁾이라는 하나의 일반개념에 속하지만 과거(*pretérito*)와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는 로망스어의 특성에 따라 의미가 구분되는 과거시제들이므로 과연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에 우리말 명칭 ‘과거’를 그냥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라는 명칭이 해당시제의 주요한 용법을 나타내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완료의 의미로 해석되는 용법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용법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우리말 명칭은 없을까하는 것이다.⁴⁾

그리고 이러한 모색의 방법론으로는 스페인어의 두 시제를 이론적으

3) 시제로서의 과거(過去: *pretérito*)가 아닌 일반적 의미의 ‘과거(過去: *pasado*)’는 ‘과거시제(*pretérito*)’ 및 ‘불완료과거시제(*pretérito imperfecto*)’를 모두 내포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과거(過去: *pasado*)를 구별해서 나타내기 위해 ‘지난 적’을 사용했다.

4) 각주 2) 및 각주 5) 참조. 시제명칭의 선택에 있어서는 각시제의 대표적인 용법을 주로 고려하여 나타내는 방법과 가급적 모든 용법을 다 고려하여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방법으로는 ‘불완료과거/과거’ 및 이와 유사한 명칭체계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고는 후자의 방법에 초점을 맞춘 시도를 하고 있다.

로 살펴보고 스페인어로 된 명칭 자체 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말의 시제 및 이것에 대한 시제명칭을 참고로 하여 한국인이 쉽게 스페인어에 있어서의 문제의 두 시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한국어 시제명칭을 찾아보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스페인어 학습자가 가진 한국어에 대한 직관을 스페인어에 접목시켜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대상 언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의 조그마한 시험적 시도가 될 것이다.

1. 불완료과거(不完了過去)와 과거(過去)라는 명칭의 문제점

불완료과거와 과거라는 시제명칭은 모두 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 적(*pasado*)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우리말의 ‘과거(過去)’⁵⁾라는 단어에는 두 시제가 모두 내포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라는 하나의 공통된 개념 내에서 파악될 수 있는 두 시제에 대한 접근은 상호 간의 상관관계와 함께 다루어져야만 가능하다.

먼저 불완료과거라는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법에서 나타나는 뜻으로부터 명명된 ‘불완료과거’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문제의 제기는 다음의 예문들을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El 12 de abril de 1555 moría en Tordesillas una extraña mujer.
(Fernández Álvarez, Manuel: 2000,19)

Dos minutos más tarde se descarrilaba el tren. (Černý, Jirí: 1969,93)

Nació Vincent van Gogh, hijo de un pastor protestante, el 30 de marzo en Zunder. (Rafols, J. F. (1961:734), Rojo(1974:136)에서 재인용).

이 문장들에서 ‘moría’ 등 소위 ‘불완료과거’는 결코 불완료의 의미를

5) 시제로서의 ‘과거’가 아닌 앞서 본 일반 개념 ‘지난 적’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갖지 않는다.⁶⁾ 위의 세 문장에서 소위 ‘불완료과거’를 ‘과거(*pretérito*)’로 치환하고 나면 어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얻게 된다.

El 12 de abril de 1555 murió en Tordesillas una extraña mujer.

Dos minutos más tarde se descarriló el tren.

Nació Vincent van Gogh, hijo de un pastor protestante, el 30 de marzo en Zunder.

그런데 이 문장들의 동사들은 그 어휘적 의미 자체가 지속이라는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순간적인 어휘적상(또는 *Aktionsart*)을 가진 것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동사들은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그에 선행하여 인과적 관계를 갖게 되는 예비적인 진행과정을 명시적 의미로서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alía cuando llegó una visita*’ 등의 ‘미완수의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 de conato*)’에서 나타나는 순간적인 어휘적상을 갖는 동사들과는 구별된다.⁷⁾

그리고, ‘*murió/moría*’의 대립에서 느껴지는 어감의 차이는 ‘*murió*’에

6) 제시된 예문의 ‘... *moría en* ...’ 등의 표현에 대하여 진행의 의미가 내포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만일에 진행의 의미가 있다면 ‘*morir*’가 나타내는 ‘죽다’라는 사건 이전의 예비과정의 진행이 느껴질 것이며, ‘*Nació* ...’에서는 ‘태어나다’라는 사건이 발생한 바로 뒤의 삶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morir*(죽다)’의 예비과정 및 ‘*nacer*(태어나다)’의 후속과정이 비록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를 썼을 때 강하게 부각되기는 하지만 동일한 예문에서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를 과거(*pretérito*)로 바꿔서 표현했을 때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morir*(죽다)’의 예비과정 및 ‘*nacer*(태어나다)’의 후속과정이 전혀 연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사건의 ‘생생한 느낌’과 그렇지 못한 느낌의 차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 6) 참고.

7) ‘*Juan se moría ayer pero ahora está bien*’에서의 ‘*se moría*’는 ‘미완수의 불완료과거’의 대표적 예이다. 이 경우에는 죽다(*morir*)라는 사건 이전의 예비단계가 명시적으로 문법을 통해 드러나면서 의미적 무게가 실려 주된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문에서 본 ‘*moría*’가 ‘미완수의 불완료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보아 ‘*se moría*’가 ‘미완수의 불완료과거’로 것은 ‘*se*’의 역할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Salía cuando llegó una visita*’는 ‘*se*’가 없이 ‘미완수의 불완료과거’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미완수의 불완료과거’에 대해서는 김현식(2002b)를 참고하기 바란다.

서 보다는 ‘moría’에서 사건의 느낌이 보다 생생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적인 어휘적상을 갖는 ‘vivir’, ‘cantar’ 등 동사들의 대립적 시제표현 ‘vivi/vivía’에서는 일반적으로 ‘완료/불완료’의 대립을 이야기한다. 이 두 시제표현 유형 ‘vivi/vivía’는 다음의 두 예문에서 보듯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쓰일 수 있다. 두 표현의 차이점도 어감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Has estado en Madr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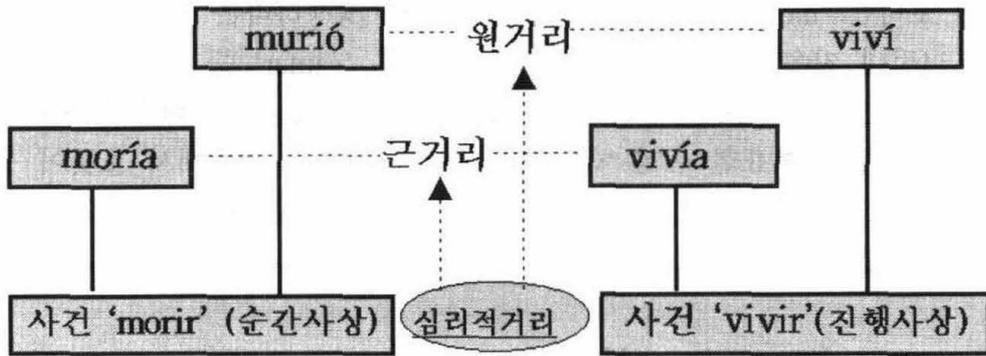
1) -Viví en Madrid.

2) -Vivía en Madrid.

따라서 보통 ‘완료/불완료’로 이야기하는 두 시제간의 차이는 심리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상(事想)을 갖는 동일한 사건(E)에 대하여 시제의 선택에 따라 지속적 문법상과 비지속적 문법상의 대립이 나타나게 된다. 당연히 지속적상을 띄는 표현이 비지속적상을 띄는 표현보다 생생한 사건의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즉, 이러한 지속적 사상의 사건을 기술하는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사건과의 심리적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속 또는 불완료의 인상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1) 순간적인 어휘적 상을 갖는 ‘morir’, ‘nacer’, ‘descarrilarse’ 등의 동사들의 경우 ‘moría’식 시간표현이 ‘murió’식의 표현보다 더욱 생생한 사건의 느낌을 나타내는 것과, 2) 지속의 어휘적 상을 갖는 ‘cantar’, ‘vivir’ 등의 동사의 ‘cantaba’류의 시간표현이 ‘cantó’류의 시간표현에 대비되어 ‘불완료상’ 또는 ‘지속상’을 나타내는 것은 동일한 현상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위에서 본 순간적 어휘상을 갖는 동사와 비 순간적인 어휘상을 갖는 동사에 있어서 ‘과거(pretérito)’와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의 용법상의 의미차이는 심리적으로 사건을 상대적으로 가깝게 느끼느냐 멀리 느끼느냐하는 공통적 사실로 귀결된다 (<그림 1>참조).



<그림 1>

그렇다면 소위 ‘불완료과거’라고 불리는 ‘cantaba’ 형의 시간표현 형태의 명칭 및 소위 ‘과거’라 불리는 ‘cantó’의 명칭을 이 사실에 기초하여 구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vivía’ 등에서의 불완료의 의미와 ‘moría’ 등에서의 완료적인 의미로 인해 이접적(離接的)으로 보아졌던 의미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의 명칭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듣고서 어색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한 우리말의 시제 및 시제명칭에서 스페인어 시제의 한국어 명칭에 원용할 개념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그림 1>에서 보는 개념이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된 또 다른 대안적 명칭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2. 한국어에서 ‘지난 적(pasado)’을 나타내는 시제명칭과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 및 과거(pretérito)

한국어에서 ‘지난 적’은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 ‘-았-’과 ‘-더-’를 통해 나타난다. ‘-았-’은 보통 과거로 보고 ‘-더-’에 대해서는 회상의 의미로 파악하여 ‘과거회상’, ‘회상과거’ 등으로 부르고 있다.

먼저 ‘-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에 해당하는 의미와 ‘현재완료(pretérito perfecto)’에 해당하는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두 개의 의미사이에서 애매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15. 나는 (그 때) 부산에 살았다.

는 첫째,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完了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둘째 ‘完了’가 아닌, 사람에 따라서는 ‘과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를 뜻으로 해석이 된다. (남기심(1972), 남기심(1978:10)에서 인용)

이러한 언급은 Reichenbach(1947)의 사건시(Point of Event) ‘E’, 기준시(Point of Reference) ‘R’, 발화시(Point of Speech) ‘S’의 개념 및 이러한 시제요소 간의 상대성 면에서 보았을 때 ‘-았-’이 ‘E<R & R=S’와 ‘E=R & R<S’⁸⁾의 시제구조를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았-’을 ‘과거’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의 과거는 앞의 두 가지 시제구조에 따른 상이한 시제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E<R & R=S’도 포함하므로 문제성이 있다.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는 ‘E=R & R<S’ 식의 구조를 갖는다.

그런데 또 다른 과거시제로 회상의 의미로 널리 통용되는 ‘-더-’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용법이 제한적이어서 주어의 제약을 받는다.

59. *나는 가더라.

60. *내가 밥을 먹더라.

61. *내가 영리하더라.

등은 모두 非文法的인데, 그것은 深層構造에서 이들 문장의 上位文章인 履行文 主語가 ‘나’이기 때문에, 즉 上位文章의 主語가 同一人이기 때문에 非文法的인 것이다. 그런데

62. 나는 출더라.

63. 나는 기쁘더라.

8) A=B는 A와 B가 동시적이다. C<D는 C가 D보다 시간선상에서 앞선다는 것을 뜻한다. ‘S=R & E<R’은 Reichenbach(1947)에서는 ‘E-S,R’로 표기되었으며 ‘R=E & R<S’는 ‘R,E-S’로 표기되었다. ‘S=R & E<R’은 현재완료의 구조이며 ‘R=E & R<S’는 영어의 과거에 해당하는 구조이다.

등은 主語가 1人稱인데도 불구하고, 즉 그 上位文章인 履行文의 主語와 同一人인데도 문법적이다. 그것은 위 문장의 술어인 용언이 특정한 종류의 것, 즉 ‘춥다, 기쁘다, 싫다, 맵다, 답다---’ 등이기 때문이다. 이들 형용사를 특히 ‘느낌형용사’라 부르겠거니와 이들 느낌형용사의 경우는 위의 제약이 通用되지 않고, 반대로 느낌형용사가 술어일 경우에는 그 주어가 上位文인 인용문이나 履行文의 주어와 同一人이 아니면 ‘-더.’가 쓰일 수 없다.

즉,

64. *그는 춥더라.

65. *나는 그가 춥더라고 말했다.

는 비문법적이다. (남기심(1972, 남기심(1978: 30-31)에서 인용)

위의 남기심(1972)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어로 표현된 화자는 객체가 되는 사건에 대한 목격 등의 오관 및 감각을 통한 인식주체라는 것이다.

장경희(1985)는 ‘-더.’에 대해 제기된 ‘회상’, ‘보고’, ‘무의도적 사실의 객관적 전달’, ‘경험’ 등의 여러 가지 의미의 문제성에 대해 고찰하면서 방금 앞에 말한 개념과 유사한 방식으로 ‘-더.’의 의미를 규정한다.

국어의 {더}가 쓰이는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 ㄱ. 영이는 공부하더라.

ㄴ. 라디오 소리가 크더라.

ㄷ. 날씨가 춥더라.

ㄹ. 맛이 없더라.

ㅁ. 냄새가 좋더라.

(37) ㄱ. 다리가 떨리더라.

ㄴ. 머리가 어지럽더라.

ㄷ. 속이 쓰리더라.

(38) ㄱ. 그날 나는 웬지 모르개 마음이 슬프더라.

ㄴ. 그날은 자꾸 그 아이 생각이 나더라.

ㄷ.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잘못했더라.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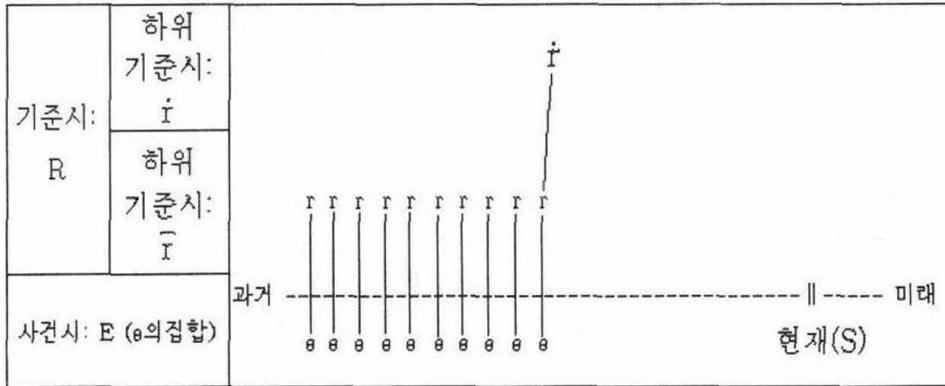
ㄹ. 꿈에 순이가 우리 집을 왔더라.

(36)은 五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로 (ㄱ)은 視覺, (ㄴ)은 聽覺, (ㄷ)은 피부감각, (ㄹ)은 味覺, (ㄴ)은 嗅覺을 통하여 알 수 있다. (37)의 (ㄴ)은 深部感覺인 平衡感覺을, (ㄷ)은 내장감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다. (36)과 (37)의 예들은 감각작용을 통한 앎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더}의 意味는 [지각]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38)의 (ㄱ)에서 앎의 행위의 대상은 화자의 슬프다는 정서이고 (ㄴ-ㄷ)은 내적 의식의 상태이다. (ㄹ)은 꿈의 내용이다. 그리고 (38)의 사실들을 아는 방법은 감각활동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다. (38)과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을 內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樣態素 {더}는 인간의 모든 감각작용과 內省을 통한 앎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넓은 意味의 知覺의 의미에는 內省을 통한 앎이 포함되므로 우리는 ‘지각’을 廣義로 해석하여 {더}의 意味를 [지각]으로 파악하기로 한다. (장경희: 1985, 69-70)

‘지각’으로의 ‘-더-’의 의미의 파악은 Kim(2000) 및 김현식(2002a)에서 ‘과거(pretérito)’ 및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를 Reichenbach식의 시제시스템에서 구별하기 위해 제안하였던 하나의 기준시 ‘R’을 두 개로 나눈 두 개의 하위기준시(sub-punto de referencia)⁹⁾의 개념에 연관되어 있는 인식의 과정이라는 개념과도 상관이 있다.

사건에 대해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하위기준시 ‘ \bar{r} ’의 형태-문법적 발현인 스페인어의 소위 ‘불완료과거’는 가상적이든 실제적이든 간에 사건에 대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인식 또는 지각의 결과이고, 또 다른 하위기준시 ‘ i ’의 형태-문법적 발현인 ‘과거(pretérito)’는 바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인식의 결과에 대한 2차적인 심리작용의 결과물이다 (다음 쪽 <그림 2> 참조, 김현식(2002a), Kim(2000) 참조).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는 사건으로부터 보다 멀리 있는 하위기준시의 형태적 발현인 것이다.

9) 이는 Rojo(1974)가 과거를 ‘0-V’ 불완료과거를 ‘(0-V)oV’로 표현한 것과도 통한다. 기준시가 하위기준시 2개로 나뉠 경우 ‘E=R & R<S’ 식의 시제의미구조가 ‘E= \bar{r} & i = \bar{r} & \bar{r} <S’로 되어 상대성의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되므로 ‘0-V’에 ‘oV’가 추가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림 2> 참조.



<그림 2>

<그림 2>에서 일반적 기준시 'R'은 두 개의 하위기준시 ' \dot{r} '과 ' \bar{r} '로 나뉘어져있다. 물리적 시간에서는 사건 간의 시간적 상대성만이 존재하므로 시제에서의 기준시라는 개념자체가 심리적인 면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사건에 대한 1차적인 관찰의 심리적 결과물인 편린 ' r '의 집합인 ' \bar{r} '에서는 사건에 대한 생생한 느낌이 느껴질 것이고 사건자체가 지속적인 것이라면 지속의 느낌도 살아있어 불완료 또는 지속의 이미지가 느껴질 것이다. 사건의 1차적 관찰의 심리적 결과물인 ' \bar{r} '에 대한 2차적 심리 작용의 결과물인 ' \dot{r} '에서는 사건의 생생한 느낌은 덜할 것이고 지속 또는 불완료라는 느낌도 덜할 것이다.

스페인어의 소위 '불완료과거'에서는 사건에 대한 과거시점에 있어서의 '실제의 지각(知覺)'¹⁰⁾ 및 '가상의 지각'¹¹⁾이 다 의미 중에 포함된다. 이는 한국어의 '-더-'와는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다. 앞서 보았듯이 한국어의 '-더-'는 인식주체에 대한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 바로 이점은 사건에 대한 '실제의 지각' 또는 경험 등으로 용법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10) '실제의 지각'이라는 개념은 '-더-'의 주어제약과 상관있는 것으로 화자가 직접적으로 기술되는 사실을 자신의 감각을 통해 인식했다고 가정되는 상황에서만 '-더-'가 쓰인다는 의미에서 쓰였다.

11) '가상의 지각'이라는 개념은 화자가 사건을 직접 자신의 감각을 통해 인식했다고 가정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와 한국어의 ‘-더-’ 사이에 공통적인 인식의 과정을 가정할 수 있어 위의 그림의 내용을 공통적인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다.

‘-더-’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다른 시제형태소 없이 쓰인 ‘-더-’만 쓰인 표현의 경우에서 동작 또는 상황의 불완료 또는 지속의 인상이 느껴진다.

영수는 밥을 먹더라.
영수는 집에 가더라.
꽃이 아름답더라.

이러한 현상은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와 공통된 것이다.

그런데 ‘-더-’가 스페인어의 ‘*moría*’처럼 미완료나 지속의 의미와 맞지 않는 어휘적의미를 갖는, 즉 순간적 어휘상(Aktionsart)를 갖는 동사에도 쓰일 수 있다.

영수가 총을 한 발 쏘더라.
바로 그 때 시험이 끝나더라.

이 경우에는 ‘-더-’가 분명히 불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현장감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더-’를 사용한 것이다. 다음의 ‘-았-’을 쓴 표현과 위의 ‘-더-’를 쓴 표현을 비교하여 보면 사건의 인상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영수가 총을 한 발 쏘았다.
바로 그 때 시험이 끝났다.

앞에서 ‘*El 12 de abril de 1555 murió en Tordesillas una extraña mujer.*’에서 보았듯이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도 이와 같은 기능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러한 ‘-더-’에 연관된 상대적으로 생생한 사건 ‘E’에 대한 느낌은 진행적인 사건에 대한 기술에서는 미완료의 상과 필

연적으로 연결된다. 즉 ‘-더-’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더욱 가까운 느낌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와 한국어의 ‘-더-’ 간에서는 시제의 의미 매커니즘이 한국어에서의 인식주체 또는 주어에 대한 제약을 제외하고는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에 관해서 쓰는 명칭 및 용어를 스페인어의 소위 ‘불완료과거’에 적용하거나 이에 연관되는 비슷한 개념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굳이 한국어의 시제명칭을 참고하는 이유는 스페인어의 소위 ‘불완료과거’에 대한 한국어 명칭이 이때까지 마땅한 것이 없었으며¹²⁾, 한국어를 참고한 시제에서의 명칭작법으로 만든 명칭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는 이유가 있다. 또한 양 국어 시제간의 명칭이 같은 방식과 개념에서 지어진다면 한국어 화자가 스페인어 시제의 명칭만 보고도 그 의미에 근접하는 개념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1) 한국어의 ‘-더-’를 참고한 ‘불완료과거’의 새로운 명칭 제안

‘-더-’가 회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더-’를 최현배(1937)등에서부터 회상시제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회상’ 등의 용어가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에 적용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는 직접 인식하지 못한 사실, 즉 회상에 해당되지 않는 과거사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는 것이다.

12) 모든 과거는 기본적으로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불완료과거’라는 명칭은 혼동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변별성 있는 개별시제의 용법을 고려해 ‘지속’이라는 용어를 ‘불완료’에 대신해서 쓸 수도 있지만 본고의 취지는 가능한 모든 용법을 포함할 수 있는 명칭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문법서에서는 전자의 관점이 더 유용할 것이다. 이강국(2004)에서는 ‘지속과거’라는 명칭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말한 전자의 관점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과거’와 ‘불완료과거’는 결국 같은 개념에 대한 상이한 방식의 어휘적 표현일 뿐이다.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 보다는 Bello(1964)의 명칭 ‘*co-pretérito*’가 개념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우리말로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명칭은 Bello의 시제명칭의 개념적 타당성도 당연히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Mi amigo me ha dicho que Cristobal Colón era italiano.

내 친구가 내게 말하기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인이었다고 했다.

??내 친구가 내게 말하기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인이었다고 했다.

‘-더-’의 ‘회상’ 또는 ‘과거에 있어서의 사건에 대한 실제적 지각’보다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는 더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말했던 대로 사건에 대한 실제의 지각과 가상적인 지각의 과정이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에 상관이 있다면 한국어의 ‘-더-’에는 단지 사건에 대한 실제적 지각의 과정만이 상관이 있다. 실제적 지각의 과정에 상관이 있는 개념이 회상이라면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를 회상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시점에 있어서의 사건에 대한 실제적 지각’과 연관되어 있는 ‘회상’을 포함하면서 ‘과거시점에 위치하는 사건에 대한 가상적 지각’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소위 ‘불완료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제명칭으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재현(心理的 再現: reproducción imaginaria)’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개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심리적 재현이라는 개념은 스페인어의 소위 ‘불완료과거’의 의미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를 과거사실의 ‘심리적 재현’이라는 의미에서 ‘과거재현(시제)’(으)로 부른다면 ‘Yo vivía en Madrid’에서의 불완료상 및 ‘El 12 de abril de 1555 moría en Tordesillas una extraña mujer’에서의 완료상이면서 생생한 사건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스페인어의 소위 불완료과거를 나타내는 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용어가 아직 생경하게 느껴지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무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³⁾

13) 기존의 것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면 처음엔 그것이 생경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친숙한 표현 및 그 개념을 써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새롭게 명칭을 부여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면에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명칭에 대한 거부감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2) 과거(*pretérito*)의 명칭

우리말의 과거 ‘-았-’은 앞에서 말했듯이 과거완료($E < R$ & $R = S$)와 과거($E = R$ & $R < S$)를 모두 나타내므로 과거라는 명칭을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에 쓰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거라는 명칭을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에 쓸 수 있는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현재완료라는 명칭을 스페인어의 ‘*he + 과거분사*’에 썼을 경우 과거는 현재완료로부터 구별된다. 같은 논리로 불완료과거와 과거 사이의 구별은 가능하다. 게다가 우리가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 우리말의 과거 ‘-았-’은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와 같은 특성을 보여서 ‘-더-’에 비교해 보았을 때 덜 생동감 있는 사건의 이미지, 시간 폭 면에서 점적인 모습을 갖는다. 우리말 문법에서 과거라는 시제는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와도 비교적 유사하므로 과거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데에 비교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 명칭은 한국어 화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를 이해하려 할 경우에 문제의 소지는 다분하다.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 현재완료(*pretérito perfecto*, ‘*he + participio pasado*’) 모두가 ‘지난 적(*pasado*)’으로 이해되어 일반적 의미의 ‘과거(*pasado*)’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 문법에서의 ‘과거’는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와 현재완료(*he + participio pasado*)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시제이므로 ‘과거’라는 명칭이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에 쓰였을 경우 한국어에서의 시제개념으로 스페인어를 이해하려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가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만을 강조하여 나타낸다고 보면 현재완료는 여기에 발화시점까지의 모종의 영향의 지속이라는 또 다른 의미적 변수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불완료과거는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에 더불어 ‘사건의 심리적 재현(*reproducción imaginaria del evento*)’이라는 의미적 변수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를 ‘원형과거(原形

過去)’ 또는 ‘과거원형(過去原形)’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E=̄r & ̄r=̄r & ̄r<S’¹⁴⁾라는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 및 과거에 있어서의 내재적 시제요소의 연결이라는 면에서 보아도 과거의 기본적인 의미라 할 수 있는 B<A의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시제요소는 ‘̄r’이다. 여기에 착안해도 ‘̄r’가 형태적으로 발현한 것이라고 간주되는 과거(pretérito)는 과거(el pasado)라는 원형적 개념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원형과거’ 또는 ‘과거원형’이라는 명칭이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형과거’ 또는 ‘과거원형’이라는 명칭이 일반인, 즉 이론적인 면에서 시제에 접근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적확히 이해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가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만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불완료과거의 경우에는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에 더불어 ‘사건의 심리적 재현 또는 상상’, 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완료상이라는 의미적 변수가 더해진 것으로 본다면, 과거(pretérito)를 과거의 원형적 개념만이 있다는 의미에서 순과거(純過去: puro pasado) 또는 단순과거(單純過去: simple pasado)¹⁵⁾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3. 가능한 또 다른 대안

앞에서 본 II. 1. 이후의 내용은 사실상 동사시제에 의해 기술되는 사건

14) <그림 2> 참조. ‘̄r’과 ‘̄r’는 일반적인 기준시 ‘R’의 구성요소로서 ‘R’을 하위 분류한 것이다.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와 과거에 있어서 ‘̄r’과 ‘̄r’는 개념적으로 상호간 존재적 의존성을 갖는다. 과거의 사건이 시제라는 문법적으로 표현되기 위해 ‘̄r’이 형태-의미적으로 선택되면 과거(pretérito), ‘̄r’가 형태-의미적으로 선택되면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로 발현된다. (김현식(2002a), 김현식(2003) 등)

15)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강국(2004)에서도 형태적, 의미적 이유에서 ‘단순과거’를 수용한다고 하고 있다. ‘단순과거(單純過去)’라는 명칭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지만 개념상으로는 다른 의미로 쓰여 왔다. 이제까지 쓰인 의미의 단순과거(pretérito perfecto simple)는 형태적인 면에서 복합과거(pretérito compuesto)에 대응하는 단순형태의 시제라는 개념에서 쓰이고 있다. 2004년 11월 사석에서 대화 중 이강국 선생님은 ‘순과거’라는 표현의 제시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과거’를 사용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기술된 것들이다. 기술되는 사건에 대하여 소위 ‘불완료과거’는 좀더 심리적으로 가까운 이미지를, 그리고 소위 ‘과거’는 그 보다 심리적으로 덜 가까운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원근감은 바로 사건의 역동적 이미지의 차이로 해석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 착안하여 소위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를 ‘역동적 과거(*pasado dinámico*)’로 소위 ‘과거(*pretérito*)’를 ‘비역동적 과거(*pasado no-dinámico*)’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¹⁶⁾

실상 ‘역동적 과거’라는 명칭은 ‘과거재현’과 어휘 의미적으로는 다른 표현이지만, ‘과거재현’이 뜻하는 심리적인 의미메커니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념적으로는 동질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실용성 문제를 차치물론(且置勿論)하면 ‘역동적 과거’ 및 ‘비역동적 과거’라는 명칭은 일단은 개념적인 면에서 보아 우리가 논의하는 두 시제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III. 결어

소위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라는 명칭이 해당 시제의 실제의 의미 또는 용법 중 일부만을 나타낸다는 이유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더-’가 스페인어의 소위 ‘불완료과거’와 의미적으로 유사함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 ‘-더-’에 대해 최현배(1937) 이후로 회상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쓰여 ‘회상과거’, ‘과거회상’이라는 명칭이 쓰이는 데에 착안하여 이와 같은 방식의 시제명칭작법을 스페인어의 소위 ‘불완료과거’에 확대시켜 적용하기 위한 용어로 ‘심리적 재현(心理的 再現: *reproducción*

16) 여기서 역동성 및 비역동성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시제를 달리해서 표현했을 때의 대립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건자체가 역동적이나 아니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imaginaria)이라는 의미에서 ‘재현’이라는 표현을 제안하였다. 즉, 스페인어의 소위 ‘불완료과거’를 ‘과거재현(pasado de reproducción imaginaria)’이라고 부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의미에 맞는 한국어로 된 시제의 명칭이 소위 ‘불완료과거’의 경우에 필요하기는 하나 쉽게 생각이 나지 않던 가운데 국어의 선어말어미 ‘-더-’의 개념설명에서의 ‘회상’이라는 용어에서 힌트를 얻어 개념적으로 이를 조금 확대하여 ‘심리적 재현’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았으며 빈약한 양과 내용의 글을 통해 이를 스페인어의 소위 ‘불완료과거’의 명칭에 도입해서 ‘과거재현(또는 ‘재현과거’)'의 사용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심리적 재현작용은 언어적 표현에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재현’이라는 표현을 수용할 때에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사건에 대해서 심리적 재현작용이 더 강하다’는 의미로 ‘재현’이라는 표현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페인어의 ‘과거(pretérito)’에 대해서는 ‘현재완료’라는 명칭과 ‘과거’라는 명칭 간의 차별성 및 소위 ‘불완료과거’와 ‘과거’ 간의 명칭상의 대립을 생각해 본다면 ‘과거’라는 명칭을 써도 그다지 ‘일반적 의미의 과거(지난 적: pasado)’로 해석될 여지는 적은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과거’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일반적인 의미의 ‘지난 적(pasado)’이어서 ‘불완료과거’ 등을 포함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를 ‘원형과거(原形過去)’ 또는 ‘과거원형(過去原形)’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형과거’ 또는 ‘과거원형’이라는 명칭이 이론적 용어로는 몰라도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해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명칭에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원형적인 과거의 개념만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순과거(純過去)’ 또는 ‘단순과거(單純過去)’라는 명칭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두 명칭 중 ‘단순과거(單純過去)’라는 명칭은 지금 우리가 수용하는 뜻과는 다른 개념 하에서 쓰여 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에게 친숙한 명칭이라는 이점(利點)을 갖고 있으며 이 점이 또한 약점이 되기도 한다.¹⁷⁾

17) 하지만 일반인에게 ‘단순과거’라는 명칭이 친숙하다는 것은 그에 연결된 친숙한 기준

또한 II.3.에서 말한 ‘역동적 과거’라는 명칭을 소위 ‘불완료과거 (pretérito imperfecto)’에 ‘비역동적 과거’라는 명칭을 소위 ‘과거(prérito)’에 대신하여 쓰는 것을 생각해 볼만하다.¹⁸⁾ 이 명칭은 두 시제에 있어서의 상과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라는 개념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소위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와 과거(prérito)의 명칭이 학술적이거나 교육적 목적 하에 그대로 시제의 명칭으로 수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명칭들과 연관된 개념이 해당시제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데에서라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끝맺는다.

의 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어 받아들이게 하여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시제명칭을 통해 시제의 의미를 잘 파악하게 하려는 목표에 대해서 그 효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약점이 되며, 동일한 명칭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새로운 개념이 혼동과 혼란을 야기 시킬 소지가 많다.

18) 그런데 ‘비역동적’이라는 어휘의 의미로 인해 ‘역동적 사실’이 ‘비역동적 과거’로 불릴 경우 등에 있어서 개념적 혼란 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먼저 개념의 확실한 이해가 수반되어야겠다.

참고문헌

- 김현식(2002a), “스페인어 시제에 대한 시제시스템적 메카니즘의 모색”, 『서어서문연구』, 22, 37-60.
- _____ (2002b), “미필적 불완료과거(Pretérito Imperfecto de Conato)의 의미에 대한 시제형태론적 분석과 David R. Dowty의 불완료의 모순(Imperfective Paradox)”, 『서어서문연구』, 23, 21-41.
- _____ (2003), “스페인어 시제의 한국어 명칭에 대한 재고”, 『서어서문연구』, 26, 35-65.
- 남기심(1972), “현대국어의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 213-238.
- _____ (1978), 『國語文法の 時制問題에 關한 研究』, 서울: 塔出版社.
- 성충훈(2002), “스페인어 동사 시제의 우리말 용어에 대한 고찰”, 『서어서문연구』, 24, 39-51.
- 이강국(2004), “스페인어 시제 명칭에 관한 소고”,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04년 겨울학술발표대회 발표록』, 246-250.
- 장경희(1985), 『現代國語의 樣態範疇研究』, 서울: 塔出版社.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Bello, Andrés(1847, 1964),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edición de Rufino J. Cuervo, Buenos Aires, Editorial Sopena Argentina.
- Cěrný, Jirí(1969), “Sobre la Asimetría de las Categorías del Tiempo y del Aspecto en el Verbo Español”, *Philologica Pragensia*, 12, 83-93.
- Fernández Álvarez, Manuel(2000), *Juana la Loca; La cautiva de Tordesillas*, Madrid, Espasa-Calpe.
- Gili Gaya, Samuel(1973),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arcelona, Bibliograf.
- Kim, Hyun Shik(2000), *Tiempo y Temporalidad en la Lengua Española*, Tesis Doctoral, Madrid,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 Rafols, J. F.(1961), *Historia del Arte*, Barcelona, Sopena.
- Reichenbach, Hans(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New York, Macmillan.
- Real Academia Española(1974),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 Royo, Guillermo(1974), “La Temporalidad Verbal en Español”. *Verba*, 1, 68-149.
- 김현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47-6, 더존빌 304호
E-mail: jchskim@yahoo.co.kr
- 논문접수일: 2004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2004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04년 12월 10일